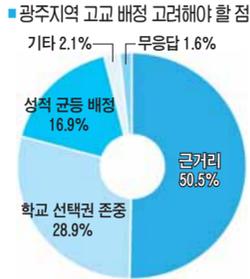


광주 고교배정방식 학부모 불만 높아 성적편차 해소보다 근거리 배정이 우선

학부모·시민 2500명 설문
79% "집과 멀어 불편"
"개선안도 별 효과 없어"



올해 초 무더기 강제배정 사태를 불렀던 광주시교육청의 성적을 고려한 고교배정방식에 대해 광주지역 학부모들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들은 고교배정이 공·사립학교 간 성적편차 해소보다는 근거리 배정 등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광주시교육청의 고교배정방식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초 광주시교육청이 고교배정을 하면서 공·사립학교 간 성적편차를 줄이면서 성적등급을 도입, 687명의 강제배정 인원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설문조사 결과, 올 초 시행한 고교배정방식에 대해 시민·학부모 78.9%는 '집과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돼 불편을 초래한다'고 답했다. 또 63.2%는 '고교선택권을 제한한다', 57.7%는 '성적우수 학생만 유리하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공·사립간 성적편차를 줄여 고교 평준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59.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피해 당사자였던 고1 학부모들은 더욱 부정적이었다. 10명 중 8명(79.4%)이 '불편을 초래했다'고 응답했고, 선택권 제한(66.1%)도 전체 응답률보다 2.9%포인트 높게 나왔다. 반면 고교평준화 기여는 52.5%만이 그렇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초 시행할 고교배정방식 개선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강했다. 성적등급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고 후지원 선택학교를 5개에서 9개로 늘리는 개선안에 대해 '강제배정 학생 수만 줄일 뿐 변화가 없

을 것이다'는 응답이 69.7%에 달했다. 또 '배정가능 고교가 적은 중학교 출신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고 우려하는 학부모도 무려 72.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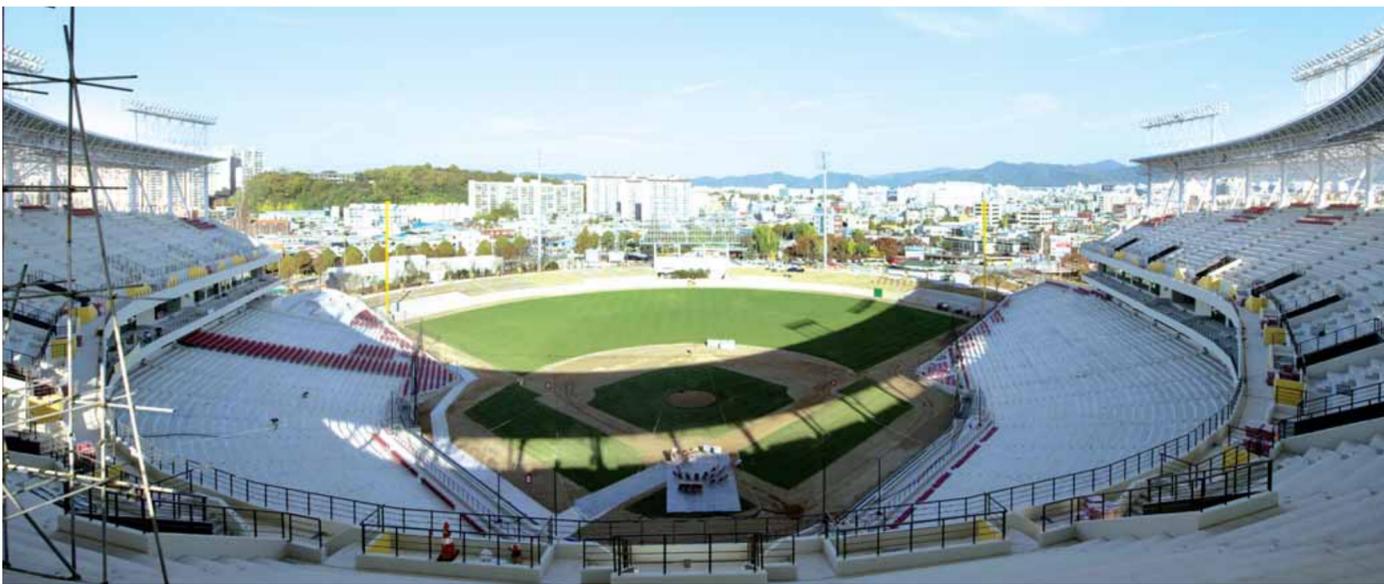
학부모들은 고교배정에서 강제적인 공·사립간 격차 완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근거리배정'(50.5%)과 '학교 선택권 존중'(28.9%)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광주시교육청이 내세운 고교배정 기준 중 하나인 '성적편차 해소를 위한 우수학생 균등 배정'은 16.9%에 그쳤다.

학부모들은 학교간 학력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현행의 '성적을 고려한 강제적인 배정'(23.9%)보다는 '공립학교 지원정책 강화'를 통한 학력 균등화(68.2%)를 더 선호했다.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장은 "고교배정방식 개선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고교배정 시기가 곧 다가오는 만큼 시급히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광주시의회가 여론조사기관 폴인사이트에 의뢰해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광주지역 중·고1 학부모 1900명과 시민 500명 등 총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학부모 ±2.25%, 시민 ±4.38%이다. /박정기기자 jwpark@kwangju.co.kr



완공 눈앞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

올 12월 완공 예정인 새 야구장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가 13일 현재 87%의 공중물을 보이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5층, 2만2244석 규모의 골조공사와 지붕공사에 이어 관람석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 4월 새 그라운드에 파종했던 잔디도 새파랗게 자리를 잡고, 2014년 프로야구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광주시의원 자녀 결혼식 축의금 전달 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인 등 무더기 조사

광주지역 주요 정치인들이 현직 시의원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전달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집단 조사를 받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광주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달 초 자녀 결혼식을 치른 A시의원 측으로부터 축의금 명부를 넘겨받아 축의금을 전달한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선관위는 지난 10월 정치인의 축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사전예고를 펼친 뒤 이달부터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 A시의원 자녀 결혼식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에게 축의금을 전달한 이들 중에는 지역 유력 정치인과 시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 114조 등은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지방의

원·시장·군수·구청장·임후보 예정자·지구당 대표자와 이들의 배우자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과 부의금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정치인들의 이번 축의금 전달이 기부행위 예외조항에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해 정치인 수십명에 대한 집단 사법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광주시의원 상당수는 선관위 지도과 직원들로부터 축의금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축의금을 받은 A의원도 기부행위에 적용될 경우 받은 돈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A시의원에 대한 축의금 제공 정치인들의 명단을 확보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아직은 확인단계여서 조사대상이나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영일기자 cki@kwangju.co.kr

아시아 예술인촌 조성 사업 보류

광주 문화수도 핵심기반...운림동 성촌마을 토지 소유주 절반 이상 수용 거부

광주 문화중심도시의 핵심기반 조성사업인 '아시아 예술인촌' 프로젝트가 잠정 보류될 위기에 놓였다. 사업 부지에 포함된 광주 동구 운림동 성촌마을 토지 소유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3명이 토지수용을 거부하면서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찬반 주민들간 갈등도 도를 넘어가고 있다.

광주시는 13일 오후 광주시 동구 학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아시아 아트컬처파크 조성 토지소유자 및 성촌

마을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사업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가운데 하나로 운림동 성촌마을 일원(1만7920㎡)에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한옥박물관, 창작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아시아 예술인들의 교류·창작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모두 306억원을 들여 오는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조성사업을 찬성·반대하는 성촌마을 주민들간 몸싸움을 벌이는 등 20여분간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까지 현장에 출동해 지켜보는 상태에서 토론회가 속개됐다.

반대측 주민들은 "광주시에 토지수용에서도 애초 공한지, 폐가, 임야를 포함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주거지를 포함시키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며 "소방도로 개설, 주차장 확보 현안도 광주시의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민은 "문화중심도시 사업과 무관한 성촌마을

주민들을 지금처럼 살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찬성측 주민은 "침체된 성촌마을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시아 예술인촌 사업을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성촌마을 토지소유주 23명은 지난 4일 광주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 공람기간 중에 토지수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반대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사업대상지(1만7920㎡)의 대부분인 1만1500㎡를 소유하고 있다. 성촌마을은 광주시 동구 의재로 빛고을 전통문화관 맞은편에 있는 자연 부락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와 동의가 필수조건인 사업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당분간 주민 모두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사업을 보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현편에도 성촌마을 발전을 위해 사업에 착수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2014 학부 신입생모집
수시 2차모집
2013년 11월11일(월)~15일(금)
광신대학교
입학문의(062)605-1114

전남과학대학교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직무능력향상형)

성인학습자 모집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직무능력향상형)이란?
급변하는 사회 속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능력 향상이나 취·창업을 꿈꾸는 일반 성인(만 23이상 혹은 재직자)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어주는 사업입니다.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정규 전문대학 졸업자격(전문학사 학위 수여)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본인의 학업 열정에 따라 전공 심화 과정으로 **4년제 학사**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학과 및 인원

모집학과	모집인원	구분	수업과정
화훼원예과	30명	야간/주말반	2년과정
뷰티미용과	15명	야간/주말반	2년과정
자동차과	15명	야간/주말반	2년과정
호텔커리어테일과	15명	야간/주말반	2년과정
음악과	15명	야간/주말반	2년과정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학과 소개

- 화훼원예과 : 22년 역사와 1,500여명 화훼동문조직 활동 및 학교기업 운영
- 뷰티미용과 : 전국 미용협회와 협력관계 구축 및 웰빙분야의 신기술 보유
- 자동차과 : 중소기업 기술이전의 우수한 교수인력 및 최첨단 실습장 확보
- 호텔커리어테일과 : 전국 유일의 학과로서 해외 취업 및 요식 창업주도
- 음악과 : 다양한 성인학습자를 위한 생활음악 교육체제 운영실적 함유



WCC(World Class College)
교육부 선정 세계적 수준 전문대학교
세계로 도약하는 전남과학대학교
광주·전남에는 전남과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지원자격
● 만 23세 이상 성인학습자

전형일정

모집구분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수시모집	11. 1(금) ~ 11. 27(수)	13. 12. 3(화)	13. 12. 9(월) ~ 13. 12. 11(수)

전형방법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는 무관
- 무시험 서류전형 (면접 50 + 재직 및 사업 경력 50)
- 재직 및 사업 경력 산출기준
미취업자 20점, 3년 이상~5년 미만 30점, 5년 이상~10년 미만 40점, 10년 이상 50점

장학금 혜택

- 전남과학대학교 자체 장학금 지급 기준 적용
-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특별 장학금 지급
- 기타 외부기관 장학금 지급 (장학재단, 농촌희망재단 등)

* 본 사업은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단기 프로그램이 아닌 정식 학위 과정**입니다.

문의 061-360-5348 (평생학습 지원센터) 010-3348-7858 (평생학습 행정담당)

승인 교육기관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http://www.leagri.or.kr

